

제18절 부구3리(富邱三里)[속칭 : 상흥부(上興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성황을 아래에 도록곡(道祿谷)이 있고 도랑을 경계하여 부구2리와 접하였으며, 서쪽은 방아들 상부인 버리재에 인접하여 주인1리 석수동(石水洞)이 있고, 남쪽은 부구천(富邱川) 남산들 차돌산이 백석봉(白石峯)을 이루고 있다. 북쪽은 두지곡산(斗芝谷山)이 우뚝 솟아 장엄한 자태로 마을 뒷산으로 이어져 있다. 마을회관은 2003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최근 흥부체육공원이 조성되고 있다.

2. 마을의 역사

1580년경에 다섯 성씨(五姓氏)의 선비가 이 마을을 개척했다고 전하며 농토(農土)가 비옥하고 산세(山勢)를 보니 부자(富者)마을이 될 것 같아 흥부(興富)라 하였으며, ‘큰마’, ‘천수동’, ‘방화동’, ‘세곡동’의 4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1967년에 부구중학교가 개교하였다. 마을 안쪽에 천태종 부국사가 있으며, 마을의 서쪽에 ‘각구산 성조사’가 있다. 마을의 안산인 남산의 차돌백이에는 마을의 진화(鎭火)를 다스린다는 ‘간물단지’가 매장되어 있다고 전한다.

1) 가는골(細谷里)

16가구가 살고 있으며, 골이 좁고 길다 하여 가는 골이라 한다. 이곳에는 자기를 생산하던 요지(窯址) 유적이 있다.

2) 상흥부(上興富)

1580년경에 개척된 마을로 농토가 비옥하고 들이 크며 흥부(興富)마을의 위쪽에 있으므로 상흥부라 하였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부구리(富邱里)로 개칭하였다.

3) 샘시골(泉水谷)

마을 앞에 우물이 있는데 물맛이 좋고 여름에는 물이 차서 우물 옆의 주막(酒幕)에는 선비들이 모여 즐겨 놀았다 하여 샘시골(泉水谷)이라 부른다.

3. 성씨별가구 분포

총 20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삼척 김씨(三陟金氏), 담양 전씨(潭陽田氏), 영해 박씨(寧海朴氏), 우계 이씨(羽溪李氏), 평해 황씨(平海黃氏), 한양 조씨(漢陽趙氏), 함종 어씨(咸從魚氏) 등이 분포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구미산(龜尾山)

마을 뒷산을 구미산(龜尾山)이라 하는데, 삼척 김씨 묘적에도 구미산이라 기록되어 있다.

2) 배(船)바위

바위 모양이 배(船)와 같다 하여 배바위라 하였다.

3) 병풍(屏風)바위

바위가 병풍과 같이 생겼다 하여 병풍바위라 하였다.

4) 설매묘(雪梅墓)

어느 부자가 설중(雪中)에 매화(梅花)를 찾아 그곳에 묘(墓)를 썼는데, 그 당시 얼마나 큰 묘를 썼던지 인부(人夫)의 땀을 씻는 물이 1km 되는 흥부리(興富里), 흥부천(興富川)까지 흘러내려 왔다고 전해진다. 눈(雪)도 희고 매화(梅花)도 희다 하여 지세(地勢)를 잘못 보아 그 부자는 얼마 후 묘지(墓地)가 나빠 망(亡)하였다는 전설이 있으며, 현재는 주인 없는 묘라고 전하고 있다.

5) 성황당(城隍堂)

마을 안에 당(當)집과 노송(老松)이 있는 성황당이 있어 매년 음력 정월 15일에 제사를 지낸다.

5. 전설

1) 두지골 묘지(墓地)

이 묘지는 삼척 김씨가 묘를 쓰기 위해 굴착작업을 하던 중에 어느 중이 와서 그 밑에 암반이 나오니 묘를 쓰지 말라 하였는데 과연 암반이 나왔다. 그러나 암반을 들어내고 묘를 썼다.

그 후 후손들에게 아무런 해(害)가 없었으므로 그 중을 푯중이라 불렀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제19절 사계1리(沙溪一里)[속명 : 사기막(沙器幕)]

1. 마을의 자연환경

쇠치봉(鼎峙峯)의 남쪽 지맥(支脈)인 해발 220m 규모의 산두치(山頭峙)에서 동쪽으로 산맥(山脈)이 뻗어 분지(盆地)를 이루고, 쇠치봉(鼎峙峯)에서 발원(發源)한 시냇물이 마을 동쪽을 거쳐 작은 들을 이루고 있다. 남쪽으로 흐르는 내(川)가 울진읍 정림2리 다리골과 경계를 이룬다. 동쪽은 삼각점(三角點)이 있는 앞산(山)이다. 서쪽으로는 ‘산두목재’를 경계로 정림1리와 접하고, 서북쪽으로는 ‘숫도가거리’를 경계로 사계2리와 닿아있다. 또 북쪽으로는 ‘태봉재’를 사이에 두고 소곡2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마을회관은 1998년 건립되었다.

2. 마을의 역사

예로부터 사기막(沙器幕)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마을로 토기(土器)와 질그릇의 잔해(殘骸)들이 마을 전역에서 출토되고 있으며, 자기(磁器)를 굽던 때는 고려 때라고 전해지고 있다. 사계(沙溪)마을은 순흥 안씨(順興安氏), 영양 남씨(英陽南氏), 정선 전씨(旌善全氏), 거제 반씨(巨濟潘氏) 등의 선조들이 1300년경부터 이곳에 입주(入住)하여 늪을 개척하여 마을을 이루었으며 평지(平地)마을, 평지마, 양지마[골마을], 잣마을 등의 자연부락이 있다.

1) 구렁마을

골(谷)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2) 잣마을

마을 위쪽에 있는 반(潘)씨의 집성촌(集姓村)으로 울진에 거주하는 반씨(潘氏)의 중심촌(中心村)이다.

3) 평지(平地)마

마을이 평지(平地)에 있다 하여 평지마을이라 하며, 영양 남씨(英陽南氏)가 모여 사는 마을이다.